

번역교육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 고찰

신지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Shin Jisun, Current issues in translator training

Translator trai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translation stud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practice and theory are inseparable. For this reason, translation training is as essential as translation research for balanced growth in both academic and vocational aspects. Compared to the literature on translation theories, however, research attention on translation and translator pedagogy has been relatively scarce. In order to meet the growing needs of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erm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is paper offers an overview of current issues regarding translation education: what to teach, how to teach, with what result.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paper will help fill a void in the literature on translation training.

Keywords: translator training, curriculum design,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process-oriented teaching, task-based learning,

■ 차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1. 사회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방법 관련 연구 |
| II. 교육내용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2. 과정중심과 과업중심의
번역교육 관련 연구 |
| 1. 커리큘럼 관련 연구 | IV. 교육평가 -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 2. 번역능력 관련 연구 | V. 나가는 말 |
| III. 교육방법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번역학 연구자들이 번역학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여러 인접학문과 연계하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학의 다양한 연구분야 가운데에서도 ‘번역교육’은 번역학자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고도, 연구가 필수적인 부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번역학 연구자들이 교육현장에서 번역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주요 관심사와 연구주제와는 별도로 번역을 어떻게 가르칠지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론과 실무가 불가분의 관계인 번역학의 특성상, 번역학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번역이론 연구만큼이나 전문적인 번역사 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들은 학계와 업계, 양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번역교육 시스템과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번역교육은 연구자들이 학문적 중요성과 실무적 필요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야 할 주요 분야이다. 국내에서 번역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교육관련 다양한 연구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역교육과 관련하여 역사와 전통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해외의 연구동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번역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연구동향을 정리할 것인가에 따라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 번역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업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켈리(Kelly, 2005)는 번역사 교육을 위한 지침서,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에서 수업 구성요소를 커리큘럼, 강의계획안, 교수자/학습자, 수업교재 및 기자재, 수업 내 활동, 수업내용의 계열화(sequencing), 평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요소별

로 번역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커리큘럼과 관련하여서는 해당국가, 관련기관, 학습단계, 전공언어 등에 따라 커리큘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현황을 정리하고 그동안 개선사항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보는 방식이다.

둘째, 번역교육 현장에서 교육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능력’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번역학자들이 번역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양하게 하위 구성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번역능력을 언어능력, 주제지식 능력, 문화능력, 번역 툴 활용능력, 생리적·심리적 능력, 전이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적 능력 등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능력을 더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교육현장에서 각 하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 진행된 번역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의 초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번역교육에서 중시하는 것이 번역결과물과 번역과정 중 무엇인가,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이 번역의 학문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 중 무엇인가 등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는 것이다. 또한 같은 주제 내에서도 연구의 초점을 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번역 수업 중 교실 내 활동이라는 주제 하에 온라인/오프라인/혼합형 활동, 개인별/소그룹별/대그룹별 활동 등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범위’에 따라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나누어 고찰하는 방법이다.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거시적으로 고찰하자면 한 국가 내에 번역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을 총 망라하여 교육역사, 교육정책, 교

육환경 등을 파악할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는 한 특정수업 내에서의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식 등을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범위가 어디까지면 거시적이고, 어디까지면 미시적인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 번역과제가 연구주제라고 했을 때, 거시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과제유형 차이 비교에서부터, 미시적으로는 한 학생의 간단한 과제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번역교육 연구의 동향을 ‘연구방법’에 따라 제시해 볼 수 있다. 연구가 개념적 연구인가, 경험적 연구인가에 따라 번역관련 교육철학, 교육이론, 교육사조 등에 관한 개념적 연구 결과와 실제 교수법 실험, 수업내용 분석, 학습자 관찰 등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 연구가 개념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 중에 어느 쪽인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두 가지 연구방법이 공존할 수 있으나 연구의 주요 목표와 내용에 따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번역학계에서 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관심사와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따라 그간의 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우르타도(Hurtado, 2007)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로 강조한 ‘교육내용(what to teach)’, ‘교육방법(how to teach)’, ‘교육평가(with what result)’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를 토대로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각 지표가 중복되거나 해당내용이 지엽적이지 않아 번역교육 분야의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다. 크게 이 세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그간의 연구내용을 구분하겠지만, 각각의 사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들을 하위 구분요소로 활용할 것이다.

이제 교육현장에서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중에서 우선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번역학에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